

‘동성애 코드’ 안방극장 속속 등장

‘슬기로운 감빵생활’ ‘응답하라’ ‘슬픈유혹’ 등

“보기 불편” “매체의 진보” 시청자 갑론을박

신원호 PD “‘남남커플’ 다양한 소재 중 하나”

“저희는 되도록 다양한 이야기를 던지는 역할에 충실한 이야기꾼입니다.”

최근 tvN 수목극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등장한 ‘동성애 코드’에 시청자들의 갑론을박이 일차 연출을 맡은 신원호 PD는 이렇게 답했다.

지난 3일 방송부터 ‘해룡이’ 한양(이규형 분)을 ‘감빵’에 보낸 연인 지원(김준한)이 한양과 동성인 사실과 그들의 과거 러브스토리가 본격적으로 공개됐다.

한양이 면회 온 지원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모습과 두 사람이 과거 동창회에서 만나 키스하는 장면 등이 전파를 타면서 포털사이트 내 실시간 드라마 채팅방에서는 한바탕 격론이 일었다. “한양의 과거사가 너무 안타깝다”며 극에 몰입한 시청자도 있었지만 “불편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응답하라’의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신원호 PD의 작품에서 동성애 코드가 삽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응답하라 1994’의 빙그레(바보)가 성 정체성으로 성장통을 겪었고, ‘응답하라 1997’에서는 준희(이호원)가 유재(서인국)를 더 ‘본격적으로’ 좋아했다.

심지어 이번에는 감옥이다. 가뜰이나 특수한 배경에서 또다시 동성애 코드를 꺼낸 데 대해 신원호 PD는 7일 “동성애도 이제는 예전보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런 소재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는 것에 많이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야기꾼으로서 이성애자들과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었고, 판단하는 것은 시청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동성애 사랑을 다룬 드라마는 이전에도 꽤 있었다.

1999년 노회경 작가가 쓴 KBS 2TV 특집극 ‘슬픈유혹’에서 김갑수와 주진모가 동성애를 연기했고, 2010년 김수현 작가가 쓴 SBS TV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는 송창의와 이상우가 심지어 ‘이 어졌다’.

최근에도 JTBC ‘힘센여자 도봉순’에서 김원해가 연기한 ‘여장남자’ 오동백, SBS TV ‘사임당, 빛의 일기’ 속 이경(송승헌)을 짝사랑한 이몽룡(홍서천), SBS TV ‘시크릿가든’ 속 오스카(윤상현)를 사랑한 음악가 선(이중석) 등 캐릭터가 있었다.

지상파와 케이블 나눌 것 없이 동성애 코드가 점차 녹아들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의 변화를 엿볼 수 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는 제작진의 모습과 녹록치 않은 일부 시청자의 반응 역시 현실이다.

‘슬기로운 감빵생활’ 속 한양과 지원의 키스신을 직접 비추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한양 역시 다소 여성화된 캐릭터라는 점



▲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



▲ tvN ‘응답하라1994’



▲ SBS ‘인생은 아름다워’



SBS ‘사임당, 빛의 일기’ ▶

에서 동성애를 또 다른 형태의 사랑 자체로 담기보다 남녀 역할처럼 구분해 그리는 분위기도 여전히 남아있다. 아울러 여성 간 사랑을 다룬 작품은 거의 없다.

그래도 사회의 소수 영역인 동성애를 미디어에서 전면에 다룬다는 것만도 의미 있는 진보라고 평가하는 시선이 많다.

한 드라마 홍보사 대표는 “아직 한계는 있지만 방송에서 마이너리티의 시선을 다룬다는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수자의 시선을 대중이 친숙한 매체에 담는 것은 미디어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송 관계자는 “드라마의 주된 시청 타겟이 여성인 현실에서 ‘남남(男男)커플’을 다루는 것은 크게 거부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며 “반대로 남성 시청자가 많은 장르극에서 ‘남남코드’가 나오거나, 일반극에서 ‘여여(女女)커플’을 조명한다면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윤식당2’ 첫회 시청률 14% 존재감 과시

지난해 히트한 tvN 예능 ‘윤식당’이 시즌2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며 출발했다.

tvN은 5일 밤 9시50분 첫선을 보인 ‘윤식당2’가 평균 시청률 14.1%, 순간 최고 시청률 17.3%를 기록하며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윤식당’ 시즌1의 최고 성적인 평균 14.1%, 순간 최고 16% 기록을 단번에 뛰어넘는 것이다.

드라마 ‘화유기’ 사태로 침울했던 tvN은 ‘윤식당2’의 같은 성적에 “첫 방송부터 기록적인 시청률”이라며 흥분했다.

tvN은 ‘화유기’ 사태에 대한 언론노조의 기자회견이 잡히지 지난 4일 예정됐던 ‘윤식당2’의 제작발표회를 돌연 취소하는 등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시청자들은 돌아온 ‘윤식당’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윤식당2’는 배우 윤여정,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이 스페인 테레리페 섬 가라치코 마을에 작은 한식당을 열고 운영하는 모습을 담는다.



첫회에서는 비빔밥과 김치전, 호떡을 메뉴로 정하고 분주히 식당 오픈 준비를 하는 네 배우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윤식당2’는 금요일 밤의 강호 SBS TV ‘정글의 법칙’도 제쳤다. 이날 ‘윤식당2’와 동시간 경쟁한 ‘정글의 법칙 쿡아일랜드’는 10.3%-13.1%를 기록했다. MBC TV ‘발칙한 동진 빈방있음’은 3.6%, KBS 2TV ‘VJ특공대’는 4.3%로 나타났다.

연습뉴스

조세호, 무한도전 정식 멤버되다

개그맨 조세호(36·사진)가 MBC TV 간판 예능 ‘무한도전’의 6번째 정식멤버가 됐다.

지난 6일 ‘무한도전’에서는 새로운 멤버 후보로 부상한 조세호에 대한 자질평가 청문회가 열렸다. 조세호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대답자판기’라는 별명답게 술술 답했고, 유재석은 “이제 조세호를 ‘무한도전’ 한 배에 탄 멤버로 잘 부탁드린다”고 소개했다.

2006년 5월부터 방송한 ‘무한도전’은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하하가 오랫동안 정식멤버로 활약 중이다. 이들과 오래 함께했던 같이 2014년 4월, 노홍철이 2014년 11월 유증운전으로 하차하고 정형돈도 2016년 8월 건강문제로 빠지면서 제작진과 멤버들은 추가 멤버를 영입하는 데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2015년 4월 ‘식스맨’ 특집으로 당시 제국의아이들 멤버였던 광희가 새롭게 합류했으나 지난해 3월 입대하면서 다시 자리가 비었다.

광희의 빈자리는 자연스럽게 양세형이 메웠다. 2016년 5월 ‘무한도전’에 게스트로 합류한 뒤 꾸준히 출연해온 양세형은 광희의 입대와 함께



자연스럽게 고정 멤버가 됐다. 그렇게 5명을 채운 후 남은 한 자리를 제작진은 배정남 등 게스트로 채워왔다.

그러나 MBC 파업 후 11주 만에 정상 방송을 재개한 지난날 11월 25일 방송부터 연이어 게스트로 출연해온 조세호가 시청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자 ‘무한도전’은 결국 조세호를 정식멤버로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해피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영화가 좋다(재)	50 투깝스(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UHD 한식의 마음	50 저글러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산		00 12 MBC 뉴스 20 투깝스(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신년특집 2018 새천년 미래를 열다(재)
1	00 넷워킹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빛고을 행복아카데미	50 VJ 특공대	30 문화사색	55 닥터 365
2	50 콘서트 필(재)	5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2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2	00 뉴스브리핑
3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05 꾸러기 식사교실 35 사이닝스타	
4	00 4시 뉴스집중		00 랭킹쇼 1,2,3 스페셜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재) 30 팔도방송 스페셜(재)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상앨범산(재) 30 살림하는 남자들	00 5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애 헬수들(재)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방송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애 헬수들 55 MBC 뉴스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콕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벨24 55 재보자들	35 투깝스(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40 가요무대			
10	40 KBS 뉴스라인	00 저글러스	00 투깝스	00 의문의 일승
11	10 월요기획	10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10 테마기획 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05 이웃집 할스(재) 55 생활의 발견	50 사랑의 가족(재)	10 천년의 전라도 2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15 꼬마기사 마이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세계의 잔치음식 태국 송크란, 카오니아우마우양)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석류발효액과 더덕김치)	15:30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브루마직 16:00 엄마 까투리 16:15 두다다콩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45 똥똥똥 유치원 1~2(재)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7:15 로보카 폴리
07:00 허풍선이 과학쇼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7:30 로보카 폴리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07:45 출동! 슈퍼월드	12:45 과학 다큐 비온드(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4
08:00 똥똥똥 유치원 1~2	13:40 엄마를 찾지마(재)	19:00 로보 발명왕 라스티
08:30 플라워링 하트	14:30 똑딱맨	19:30 EBS 뉴스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30 똑딱맨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09:00 몬카트	15:00 우주탐험개 젓	
09:15 쇼피 루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8일(음 11월 22일 庚子)
子	48년생 무리가 따르다면 행하지 않아야 좋다. 60년생 진행 방향으로부터 장애 요인이 드러난다. 72년생 상대방에게 쉽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환경이다. 84년생 부작용의 원인이 해소되어야 생산적으로 전환된다. 행운의 숫자 : 49, 38	42년생 전방위적인 정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54년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해결 기회가 보인다. 66년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78년생 변동 사항이 생기나 차질을 주지 못 한다. 90년생 긴장의 끈을 놓지자 말고 살피라. 행운의 숫자 : 40, 32
丑	49년생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같이 아니면 가지 말라. 61년생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맹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73년생 냉철하게 돌이켜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85년생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50, 37	43년생 오해를 풀고 나면 불편이 해소되리라. 55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7년생 말 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79년생 근본적인 사실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다. 91년생 희망의 빛이 가까이 비추고 있다. 행운의 숫자 : 05, 46
寅	50년생 집착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비웠을 때 더 효과적이다. 62년생 선택과 집중, 조절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74년생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속에 해답도 있음을 간파하지 말라. 86년생 부주의한다면 큰일이 벌어진다. 행운의 숫자 : 33, 95	44년생 더불어 어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니 앞서서 열려야 할 필요는 없다. 56년생 시작만 해 놓으면 절반은 이룬 셈이다. 68년생 보류해 왔던 일들을 처리하라. 80년생 즉시 조치했을 때에 부작용을 줄인다. 행운의 숫자 : 62, 81
卯	51년생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환기에 와 있다. 63년생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75년생 두루 살피며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87년생 사세부득이 그렇게 됨을 알라. 행운의 숫자 : 30, 30	45년생 조짐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리라. 57년생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대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용이하다. 69년생 흥성이 지고 길성이 따르므로 기세이다. 81년생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셈이다. 행운의 숫자 : 73, 93
辰	52년생 뒤쫓으면서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겠다. 64년생 마음을 비우고 일한다면 난관을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느니라. 76년생 어떤 임정을 취하느냐에 따라 정세가 달라진다. 88년생 우연히 길사와 연결되나 오래 가지는 않는다. 행운의 숫자 : 20, 45	46년생 추진 방향을 파격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8년생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충일에 힘써야겠다. 70년생 순리에 역행한다면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82년생 비슷한 수준으로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행운의 숫자 : 13, 17
巳	53년생 우선순위를 역할에 상우함이 없어야겠다. 65년생 자신의 생활이나 상대방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77년생 불만 하다면 오래도록 집착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89년생 용기 있게 추진하면 흉사도 비켜 간다. 행운의 숫자 : 75, 12	47년생 균형과 조화가 가장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처신하자. 59년생 오해로 인한 시비가 보인다. 71년생 합리적인 조절이 좋은 선택으로 이어진다. 83년생 자립자득이요, 사필귀정이니 인과응보 하리라. 행운의 숫자 : 46, 4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